

입찰 경쟁률을 계속 하락

2022년 11월 — 전국적으로 Redfin 에이전트가 작성한 홈 오퍼의 44.6%가 8월에 경쟁에 직면했는데, 이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입찰 전쟁 비율입니다. 이는 1년 전의 63.5%, 7월 수정된 47.2%에서 하락한 것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다.

전국의 Redfin 에이전트가 제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입찰 전쟁에서 일반적인 주택은 8월에 3.2개의 제안을 받았으며 7월에는 3.5개, 1년 전에는 5개였습니다.

2021년과 2022년 초 주택 시장이 냉각되고 구매자가 팬데믹으로 인한 주택 구매 열풍에서 물러나면서 입찰 전쟁 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주택 판매 수가 전년 대비 거의 20% 감소했습니다. 모기지 이자율이 9월 중순에 6%에 도달하여 1년 전보다 두 배나 높아졌기 때문에 구매자는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.

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Redfin 에이전트가 제출한 주택 제안의 5분의 1 이상(21.7%)이 8월에 경쟁에 직면했는데, 이는 분석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점유율이었습니다. 플로리다주 탬파는 입찰참가율이 23.8%로 두 번째로 낮았고 워싱턴주 올림피아(24.2%), 피닉스(26.4%), 미니애폴리스(27%)가 뒤를 이었다.

필라델피아(61.7%)가 입찰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, 캘리포니아 산호세(58%), R.I. 프로비던스(54.5%), 보스턴(54%), 디트로이트(52.9%)가 뒤를 이었다.

입찰 전쟁 비율은 8월에 35.4%의 주택 제안이 경쟁에 직면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. 텍사스주 샌안토니오(21.7%, 59.8%에서 감소),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(31.4%, 68.8%에서 감소), 워싱턴주 올림피아(24.2%, 60.7%에서 감소),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(24.2%)가 그 뒤를 이었다. 62.5%에서 29.7%로 감소).

입찰 전쟁율은 가장 높은 대도시인 필라델피아를 제외하고 분석된 모든 대도시에서 감소했습니다. 그 비율은 1년 전의 60.2%에서 상승했습니다.

타운하우스에 대한 제안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 유형보다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Redfin 제안의 44.1%가 입찰 전쟁에 직면했습니다. 단독주택(42.1%), 다가구(40.2%), 콘도(37%) 순이었다.

